



방언 언정 담

사람이 담긴 말, 세상이 담긴 말

한성우 지음

2013년 9월 30일 출간 | 15,000원 | 304쪽

남도에서 두만강까지, 서울각쟁이부터 육진 아버지까지
국어학자 한성우와 함께하는 방방곡곡 우리말 답사
말의 경계 너머, 새로운 소통이 시작되는 방언의 인문학

네가 오고 내가 가는 다리 하나 놓자야
돌다리 놓을까 비가 오면 어찌나.
나무다리 놓을까 눈이 오면 어찌나.
다리 하나 놓자야. 무슨 다리 놓을까.
마음다리 놓자야 마음다리 놓자야.
뜨뜻뜨트 놓자야.
-조선족 노래 <다리 하나 놓자야>(37page)

| 책 소개 |

누구나 사투리를 쓴다. 시골 사람들만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만 사투리를 쓰는 게 아니라, 서울 사람들도 서울 사투리를 쓴다. 그 다양한 방언에는 우리 삶의 정서와 역사, 사회의 면면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남도에서 두만강까지, 저자가 방언 연구를 하며 오간 길에서 만난 사람들, 머문 풍경들이 우리 주변의 이런 방언들을 깨운다. 방언학을 쉽게 녹여낸 저자의 이야기들은 그저 흘러들었던 사투리를 다시 듣게 하고, 사투리의 행간에 담긴 더 많은 뜻을 듣게 만든다. 소용돌이치듯 중앙으로만 집중되는 사회, 그럼에도 지역으로 정치색을 결정짓는 사회 속에서 사는 우리가. 어쩌면 진작 귀 기울여야 했던 것이 바로 방언이 아니었을까. 말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소통을 가능케 하는 방언의 인문학이다.

1. 20년의 방언조사에서 저자는 단순한 소리 이상의 말들, 우리 삶의 정서와 역사, 사회가 담긴 말들을 만납니다.

“개땅쇠 아냥께 왜 단전이라? 개땅쇠 모르요, 개땅쇠?”

“글쎄요, 개똥새는 들어봤어도.....”

“그렇게 나가 말한다 않요 찌그 봐요 맨 개뿔 아뇨 거 머시냐 우덜은 저걸 개뿔이라고 하들 앓고 개똥이라고 해. 전라도에 개똥이 원체 많애 싸니까 여그 사는 사람을 개땅쇠라고 해. 개땅에 사는 사람이라고 개똥새가 아니랑게. 개똥은 무신 얼어 죽을 개똥. 알라든 똑똥기 알고, 꺾질라든 똑똥기 꺾차.”

- '세 여인의 향기' 중에서(112쪽)

국어학자 한성우는 '사투리'를 들려줄 사람을 찾아 전국 곳곳을 다닌다. 배낭에 지도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다보니 간첩으로 오해받기도 하고, 지역의 토박이 어르신들을 물색하니 약장수라고 문전박대받기 일쑤였다. '말'을 찾는 이 험난한(?) 여정은 시간으로는 학생 시절부터이니 스무 해가 넘었고, 공간으로는 남도에서 두만강에 이른다. 그 길 위에서 그는 '말'과 함께 '이야기'를 듣는다. 모두 우리 삶의 정서와 역사, 사회의 면면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이야기들이다. 한 국어학자의 방언 기행기인 이 책에서는 이렇게 '방언의 문화적 가치'가 공명한다.

◆ 서울 600년의 시간보다 더 오래 그 땅에 산 가문의 할머니에게서 되새긴 '서울각쟁아의 진짜 의미'(27~35쪽)

◆ '중국 동포들의 사투리 지역 분포'와 '우리나라의 사투리 지역 분포'가 데칼코마니인 이유(126~127쪽)

◆ 객지에 사는 가족을 '지들리면서' 오래 둘 수 있는 것들로 마련한 주전부리, '지두름'(48~49쪽)

2. 말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소통을 만드는 '방언의 인문학'입니다.

2-1. 사람이 백이면 사투리도 백, 각자의 사투리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늘 귀를 스치고 지나가는 말들, 무심코 들으면 그저 '말일 뿐이지만 귀를 쫓긋 세우고 들으면 모두가 '사투리, 혹은 '방언'이다. 누구나 사투리를 말한다. 서울 사람은 서울 사투리를, 시골 사람은 그 지방의 사투리를 쓴다. 고향을 떠나도, 표준어 교육을 받아도 그 사람의 말을 이루는 뼈대 어디에선가는 사투리의 냄새가 난다. 그렇게 귀로 흘러들어오는 사투리 조각들 속에서 많은 냄새를 맡는다. 그가 사는, 혹은 살던 땅의 냄새를 맡고 그녀가 살아온 삶의 냄새를 맡는다.

-프롤로그 '방언을 찾아 떠나는 여행' 중에서(15쪽)

책은 오랜 연구로 얻은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우리 주변의 방언을 깨운다. 방언은 종내 사라질 말이라고들 한다. 들으면 재미있지만 나는 안 쓰는 촌스러운 말이라고 여기는 듯도 하다. 그러나 누구나 사투리를 쓴다. 사회적 계층과 나이 등에 따라 분화되는 '사회방언'까지 포괄한다면 더 그렇다. 저자는 이 사실을 환기하며, 출신지에 따라 살아온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투리의 양상을 보여준다. 귀를 쫓긋 세우고 주변의 사투리를 다시 듣게 하고, 삶의 다채로운 풍경이 담긴 사투리의 행간을 비로소 읽게 만든다.

- ◆ 바닷길로 전해진 충청도말과 평안도말을 섞어 쓰는 강화군 교동의 전 웅(104~106쪽)
- ◆ 복숭아는 평안도 사투리로 '복샤'라고 하면서 바나나는 '쌍저'라는 중국말을 쓰는 중국 단동의 동포들(159쪽)
- ◆ '문상(문화상품권)', '생파(생일파티)'의 줄임말을 사용하는 세대의 양상(271~278쪽)

2-2. 사투리에 투영된 뿌리 깊은 편견과 문제들을 되짚어봅니다.

어느 순간 홍어와 과메기는 다른 뜻이 된다. 홍어는 전라도 사람, 그것도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 그래서 없애버려야 하는 사람의 뜻이 된다. 과메기는 경상도 사람, 비릿한 기름기가 흐르는 사람, 그래서 쓸어버려야 하는 사람의 뜻이 된다. 전라도와 관계된 얘기만 나오면 홍어 냄새가 나니 공격하자는 말이 나온다. 경상도와 관계된 얘기만 나오면 과메기 냄새가 나니 소탕하자는 말이 나온다. 어느 순간부터는 철없는 아이들까지 가세한다. 일부 철없는 어른들도 꼴통이니 종북이니 하면서 가세한다. 뿌리를 내리고 사는 땅, 그 땅에서 나는 음식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모든 것에 죄의 굴레를 씌운다.

-'과메기와 홍어의 향기' 중에서(130~138쪽)

소용돌이치듯 중앙으로만 집중되는 사회, 그럼에도 지역으로 정치색을 결정짓는 사회 속에서 사는 우리다. 어쩌면 우리는 진작 방언에 귀 기울여야 했던 것은 아닐까. 책은 방언 속에 투영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을 되짚는다. 드라마에서 튀어나오는 정형화된 사투리 한마디, 부러 표준어를 쓰려고 노력하는 사소한 태도 하나도 달리 보게 만든다. 말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소통을 만드는 '방언의 인문학'이다.

- ◆ 충청도의 화법은 '느린 화법'이 아니라 '접는 화법'(149~158쪽)
- ◆ 표준말에 작용하는 원심력과 구심력(121~126쪽)
- ◆ 흰 줄과 검은 줄을 가진 말의 이름으로 우리말 '얼룩말'이 맞을까, 북한말 '줄말'이 맞을까?(261~269쪽)

3. 일상에 숨은 방언학을 발견하고 방언학을 생생한 이야기거리로 만듭니다.

전라도에는 '육학년'은 없고 '유강년'만 있다. 평안도에는 '차칸 남자'는 없고 '차간 남자'만 있다. '팔 달린 옥'과 '발 달린 옥'의 차이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씨팔'이든 '씨발'이든 이 옥의 본래 모습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쨌든 앞에 붙는 요소는 제외하고 뒤의 요소만 본다면 '싹 할 놈'이다. 'ㅂ'과 'ㅎ'이 만난다. '급하다'를 생각해 보면 '씨팔'이 맞다. 표준발음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나 유독 전라도와 평안도 지역에서는 'ㅂ'과 'ㅎ'이 만나면 그냥 'ㅎ'이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씨발'이 된다. 오늘날과 같이 방언이 뒤섞이지 않았다면 전라도 사람들 앞에서 '씨팔'이라고 해도 옥이 되지 않는다.

- '육설의 방언학' 중에서(222쪽)

나아가 책은 일상에 숨어 있는 방언학을 들려주며, 독자들을 방언학 그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끈다. 방언은 연구자들이 찾던 고어의 흔적이기도 하고, 어원을 모른 채 쓰는 말의 본래 뜻을 알려주기도 한다. 다른 말로 대체될 수 없는 절묘한 표현력을 보여주기도 하며, 산발적이고 불규칙해 보이는 그 말들에는 규칙적이고 예상 가능한 음운 현상이 담겨 있다. 이처럼 책은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 사이로 오간 놀라운 언어 감각과 지식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더불어 방언과 우리말에 대한 전복적이고 도발적인 이슈를 던진다. 이 책을 통해 방언은 연구자의 논문을 벗어나 '방언의 주인'인 우리들에게 생생한 이야기거리가 된다.

- ◆ 이상화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 가을꽃 '맨드라미'가 나오는 이유(242~254쪽)
- ◆ '이때' '저때'를 '입때' '접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옛말의 흔적(54~56쪽)
- ◆ '송두리째'에서 '송두리'와 '모밀'의 비밀을 밝혀준 사람들(213~215쪽)
- ◆ 눈에 띄게 예쁘지는 않는데 자꾸 눈이 가게 되는 사람에게 쓰는 '권 있다'라는 전라 방언(90쪽)
- ◆ 경상도 사람들이 'ㅡ'와 'ㅣ' 발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139~148쪽)
- ◆ 된소리는 우리말 파괴인가, 새로운 표현의 탄생인가(279~286쪽)

| 저자 소개 |

한성우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 서울과 아산을 오가다가 열두 살 이후로는 내내 서울에서 살았다. 아산에서 산 기간은 합쳐봐야 일곱 해 정도인데 말이나 행동, 그리고 머릿속은 전형적인 충청도 사람이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해 박사까지 마친 후 가톨릭 대학교, 서울대학교를 거쳐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된 전공분야는 음운론과 방언학이다. 《평안북도 의주방언의 음운론》,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이공계 글쓰기》 등의 책을 썼다. 한반도의 남쪽 지역은 물론, 중국의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까지 많은 지역을 조사하고 연구했지만 주로 반도의 서쪽을 대상으로 했다. 북한 지역의 말은 학문적, 민족적인 면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틈만 나면 방언조사를 떠날 궁리를 하고 있다.